
		<h1>보도참고자료</h1> <p>2021. 3. 9.(화) 배포</p>			
보도일	<p><b>2021. 3. 10.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b>  <b>인터넷·방송·통신 3. 9.(화) 12:00 이후 보도 가능</b></p>				
담당과	학교정책과	담당자	과장 사무관	장홍재 권용기	(☎ 044-203-6506) (☎ 044-203-6441)

## 202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

- ◆ 사교육 총액(↓11.8%)과 참여율(↓7.9%p) 전년 대비 감소
  - 고등학교는 총액 및 참여율 1차 조사(3-5월) 감소, 2차 조사(7-9월) 증가
- ◆ 초중고 학생 기초학력 지원 강화 및 고교 교육 내실화 지원 등 사교육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강화
- ◆ 잠재된 사교육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주요 교육정책 지속 추진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3월 9일(화) 발표하였다.
  - 이번 계획에는 202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, 코로나19 상황의 사교육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과 함께 잠재된 사교육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하였다.
- 아울러, 교육부는 공교육의 혁신과 신뢰회복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최선이라 판단하고, 주요 교육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# 1

## 202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

### 2020년 초·중·고 사교육비조사 개요

- (추진 근거) 「통계법」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
- (추진 연혁) 2007년부터 통계청-교육부 공동조사
- (조사 규모) 전국 초·중·고 약 3,000개 학교의 학생 약 80,000명
- (조사대상 기간) 2020년 3~5월(5~6월에 조사), 7~9월(9~10월에 조사)
- (조사 방법) 인터넷(모바일 포함) 및 종이 조사
- (조사 내용) 사교육비 조사항목(교과별 개인/그룹과외비, 학원비, 학습지, 인터넷/통신 강좌비 등) 및 관련 교육비 조사항목(방과후학교 비용, EBS 교재비, 어학연수비 등)
  - ※ 통계 수치는 개별적으로 반올림했으며, 하위 항목의 합계가 전체와 다를 수 있음
  - ※ 괄호 안 (↑), (↓) 표시는 전년 대비 증감률 혹은 증감차를 의미
  - ※ 5개 권역: 수도권·강원(서울·인천·경기·강원), 대경권(대구·경북), 충청권(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), 호남권·제주(광주·전북·전남·제주), 동남권(부산·울산·경남)

##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 감소

□ 2020년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※ 사교육비 총액(9.3조 원, ↓11.8%), 참여율(66.5%, ↓7.9%p), 주당 참여시간(5.3시간, ↓1.2시간)

○ 이번 조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교육 총량의 감소 확인에 더해, 감염병 상황에 따른 차시별·권역별\* 사교육비 지출양상과 참여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.

\* 수도권·강원(5.6조 원, ↓11.4%), 대구·경북(0.7조 원, ↓18.6%), 충청(0.9조 원, ↓13.9%), 호남·제주(0.9조 원, ↓3.9%), 동남(1.2조 원, ↓13.2%)

○ 1차 조사 기간(3-5월)에는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단계 ‘심각’ 격상 및 중대본 운영(2.23.), 휴업 명령(3.2~4.8.) 등으로 사교육 참여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, 2차 조사 기간(7-9월)에는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.

※ 1차 조사 기간(3-5월) 사교육비 총액 ('19) 5.2조 원 → ('20) 4.2조 원(↓19.9%)

2차 조사 기간(7-9월) 사교육비 총액 ('19) 5.3조 원 → ('20) 5.1조 원(↓3.9%)

## 고등학교 사교육 소폭 증가

-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에, 고등학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※ 초등학교 3.6조 원(↓1.2조 원, ↓25.2%) 중학교 2.6조 원(↓0.05조 원, ↓1.8%)  
고등학교 3.1조 원(↑0.01조 원, ↑0.3%)

- 고등학생 사교육 지출 양상을 전년 동일 기간과 비교하면 1차 조사 기간에는 감소하였으나, 2차 조사 기간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※ (1차) 사교육비 총액 1.50조 원(↓4.2%), 사교육 참여율 60.4%(↓1.9%p)  
(2차) 사교육비 총액 1.61조 원(↑5.0%), 사교육 참여율 61.0%(↑2.5%p)

-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(28.9만 원, ↓10.1%)는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, 초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(22.1만 원, ↓23.7%), 중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(32.8만 원, ↓3.4%)는 감소하고 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(38.8만 원, ↑5.9%)는 증가하였으나, 증가율은 둔화\*된 것으로 나타났다.

\* 고등학교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(만 원, 12개월 기준) :

(‘16) 26.2 → (‘17) 28.5(↑8.4%) → (‘18) 32.1(↑12.8%) → (‘19) 36.5(↑13.6%)

- 고등학생의 일반교과 관련 사교육 목적\*은 학교수업 보충과 진학 준비 요인\*\*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, 사교육 유형별 참여율\*\*\*은 학원, 개인과외, 그룹과외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.

\* 학교수업 보충(47.7%) > 진학준비(30.5%) > 선행학습(17.5%) > 불안심리(3.7%) > 기타(0.7%) 순

\*\* 학교급별 진학준비 목적 사교육 참여율 : 초 6.0%, 중 14.8%, 고 30.5%

※ 사교육 목적은 복수응답 항목이며, 전체 응답을 100으로 환산함

\*\*\* 학원(40.5%, ↑1.2%p), 개인과외(12.0%, ↓0.4%p), 그룹과외(6.6%, ↑0.2%p), 인터넷 및 통신(5.5%, ↑0.5%p), 방문학습지(0.5%, -), 기타(0.3%, ↓0.3%p)

##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 격차 지속

-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전년과 유사하였으며,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(50.4만 원, ↓6.4%)를 200만 원 미만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(9.9만 원, ↓5.2%)로 나눈 값은 약 5.1배로 전년(5.2배, 53.9만 원 / 10.4만 원)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.
- 다만,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(80.1%)과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(39.9%) 차이는 40.2%p로, 전년 차이(38.3%p)보다 1.9%p 증가했다.

## 시도 간 사교육 지출 격차 완화

-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대구·경북 지역의 사교육비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.
-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(43.3만 원)과 가장 적은 전남(18.7만 원)의 차이는 약 2.3배로, 전년(2.5배, 서울 45.3만 원 / 전남 18.0만 원)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5개 권역\* 기준으로는 대구·경북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(23.1만 원)가 전년(27.6만 원) 대비 가장 크게 감소(↓16.3%)한 것으로 나타났다.

\* 수도·강원(33.8만 원, ↓9.9%), 대구·경북(23.1만 원, ↓16.3%), 충청(23.4만 원, ↓12.6%), 호남·제주(23.2만 원, ↓1.0%), 동남(24.7만 원, ↓11.4%)

## 예체능 및 취미·교양 사교육,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

-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제한의 영향 등으로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예체능 및 취미·교양 사교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.
  - 일반교과 관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(23.0만 원, ↓3.0%)는 전년 대비 감소하고 참여율(52.6%, ↓4.1%p)은 하락했으며, 예체능 및 취미·교양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(5.8만 원, ↓30.1%)는 감소하고 참여율(32.1%, ↓11.9%p)은 하락하였다.
    - 특히, 고등학교 예체능 및 취미·교양 사교육 참여율(13.8%, ↓1.1%p)은 하락한 가운데, 중학교 참여율(20.2%, ↓5.9%p)과 초등학교 참여율(46.9%, ↓20.4%p)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한편, 유상과 무상을 포함한 전체 방과후학교 참여율(9.5%, ↓39.2%p)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  - ※ 초등학교 10.9%(↓48.1%p), 중학교 4.2%(↓23.7%p), 고등학교 12.0%(↓35.7%p)

## 진로·진학 학습상담 수요 증가

- 진로·진학 학습상담 참여율(2.4%, ↑0.1%p)은 전년 대비 상승하여, 교과 사교육 외에도 진학·입시 및 진로, 성적관리, 학습방법 등을 상담하는 사교육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  - ※ 진로·진학 학습상담 총액 : ('19) 736억 원 → ('20) 774억 원(↑5.1%)

## 진학희망 고교별 사교육 차이 계속

-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진학희망 고교 유형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자율형 사립고(41.9만 원, ↓11.9%) > 과학고·영재학교(39.0만 원, ↓11.8%) > 외교·국제고(38.0만 원, ↓16.5%) > 일반계고(자율형 공립고 포함)(23.1만 원, ↓17.2%) 순으로 나타났다.

- 사교육 참여율은 자율형 사립고(80.1%, ↓8.9%p) > 외교·국제고(77.8%, ↓11.1%p) > 과학고·영재학교(77.4%, ↓11.3%p) > 일반계고(자율형 공립고 포함)(67.3%, ↓11.4%p) 순으로 나타났다.

※ 예술고·체육고, 마이스터고, 특성화고, 대안학교, 해외유학 등은 비교에서 제외

## 자율적 학습을 위한 EBS 교재 구입 증가

-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 EBS 교재를 구입한 비율\*(21.7%, ↑6.3%p)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, 교재를 구입한 총액(930억 원, ↑36.0%)도 증가했다.

\* (학교급별) 초 19.4%(↑9.5%p), 중 12.9%(↑3.6%p), 고 35.1%(↑3.1%p)

-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원격수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공간 제약이 적고,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EBS 교재 및 강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.

## 2 대응방안

유형	영역	추진 방안
코로나19 맞춤형 대응	학습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초학력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강화</li> <li>■ 고등학생 학습보충·심화 수요에 적극 대응</li> </ul>
	진로·진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입시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진로·진학지도 내실화</li> </ul>
	교육격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</li> </ul>
잠재 사교육 수요 선제 대응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방과후학교 정상화 및 돌봄 확대</li> <li>■ 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주요 교육정책 일관된 추진으로 공교육 내실화</li> </ul>

## 기초학력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강화

□ 기초학력 저하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.

○ 초등 1~3학년 대상 정책적 지원\*을 통해 협력수업 지원을 강화하고, 기초학력 집중지도(전담)교사를 확대한다.(‘21.)

\* 초등 1~3학년 과밀학급(학생 30명 이상) 및 특수학급(학생 7명 이상) 대상 기간제 교원을 추가 배치(약 2,000명)하고 추가 교원 인력수요를 산정하여 보통교부금 교부(987억 원)

○ 가정 또는 교사의 보충지도 과정에서 기초학력 학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‘배·이·스·캠프’\*(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) 콘텐츠를 확대하고,

- 두드림학교(5,000개교) 및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(142개소)를 통한 맞춤형 지도·상담을 강화한다.

\* 기초학력 진단-보정시스템 문항·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콘텐츠로, 초1~고1 대상 3R's(읽기·쓰기·셈하기)·국어·사회·수학·과학·영어 문항 25,000개, 영상 420개 개발·보급(~21.7.)

○ 온라인 튜터\*를 통해 초등 4~6학년, 중학생 대상 원격과 대면으로 기초학력 학습지도·상담 등을 실시하여 기초학력 및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.(‘21.5.~)

\* (사업규모) 교원자격상담자격 소지자, 예비교원 등 튜터 4,000명 채용 예정(1차 추경안 487억 원)  
(추진내용) 튜터 1명당 학생 4명을 배정하여 온라인 소그룹 학습지도·상담 및 오프라인 지도 실시

○ 또한, 고교생 대상 1:1 학습상담(p.9 학습컨설팅과 연계) 등 다양한 맞춤형 학습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□ 학생의 참여수업 확대, 과정중심평가 활성화 등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습관 형성을 지원한다.

○ 우선,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해 거꾸로 수업, 문제해결학습(PBL) 등 학생 참여 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이 흥미와 목표를 갖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※ 초·중등학교 12개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온·오프라인 연계 수업, 평가·기록 예시자료 보급(21.2)

- 현장중심의 수업·평가 사례를 확산하고, 학생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서·논술형 평가도구와 안내서(가이드북)를 확대 개발·보급\*하여 과정중심평가를 확대한다.

\* ('20) 중등 국·수·사·과·영 → ('21) 중등 교과 확대 및 초등 국·사·과 개발

-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구성, 교수·학습 방법 등이 교원 양성·연수 과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.

※ (양성) 「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·운영 권고」에 관련 내용을 반영·안내(~'21.7.)  
(연수)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현직 교원 연수과정에 관련 교육내용 반영('21)

- 인공지능(AI) 기반 기술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.

- 초등 국어·영어·수학과목 인공지능(AI) 기반 프로그램\*을 통해 초등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.

\* (영어) AI 팽톡('21.3.~, 초 3~6학년), (수학) 똑똑! 수학탐험대('20.9.~, 초등), (독서) 한 학기 한 권 읽기 웹서비스('21.9.~, 초 3~6학년)

- EBS와 연계하여 인공지능(AI) 기반으로 문제를 추천하고 시험지 만들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·중학생 대상 학습콘텐츠를 제공한다.

※ (추진일정) 초·중 AI 시스템 구축(~'21.10.) → 서비스개통('21.11.~)

- 교육과정 성취·평가기준에 기반한 온라인 형성평가 시스템\*을 개발하여 성취수준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.

\* 평가 도구의 제작, 시행, 채점, 결과 등 제공(초5~중3 국어, 수학, 사회, 과학, 영어 우선 개발)

## 고등학생 학습보충·심화 수요에 적극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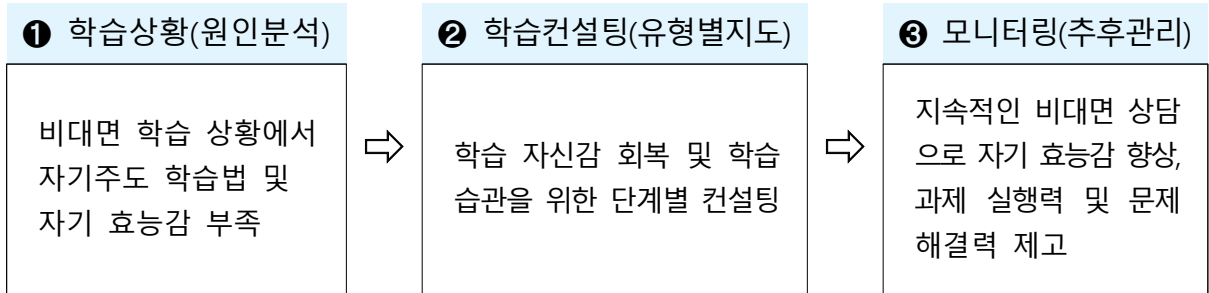
- 등교·원격수업 병행, 고3 우선등교 등 지난 1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방역하에 고등학교에서의 교과학습, 학습보충·심화 및 진학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.



□ 고교생 대상 학습컨설팅과 맞춤형 책임지도 등으로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.

- 먼저, 수석교사, 진로·진학·입시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원, 지역 기반(인프라)을 활용해 고교생과 온·오프라인 1:1 맞춤형 학습상담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.

※ 맞춤형 학습상담(학습컨설팅) 사례(「학습컨설팅 가이드라인·사례집」, '21.2.)



- 전체 고등학교의 약 60%에 해당하는 고교학점제 연구·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지도를 실시하여 최소 학업 성취수준 도달을 위한 책임지도를 강화한다.

※ 고교학점제 연구·선도학교 수('20.4.1. 기준 전체 고등학교 수 대비 비율) : ('20) 732개교(30.9%) → ('21) 1,457개교(61.6%)

<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'학생 맞춤형 책임지도 강화' 운영 흐름(예시) >

시기	단계별 내용
학기 전	· 과목 이수 기준(최소 학업 성취수준) 마련 · 과목별 수업 및 평가 계획 수립
학기 중	· 진단평가를 통해 최소 학업 성취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 · 과목 성취 상황에 대한 학생·학부모 안내, 담임교사와 공유 · 학생 맞춤형 지도 실시(과제 부여, 방과후학교, 학습동아리 지원 등)
학기 말	· 학기말 평가 후 최소 학업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 파악 · 최소 학업성취 수준 도달 프로그램 운영(강좌형, 과제형, 온라인형 등)

- EBS 교육자료(콘텐츠)를 활용하여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.
  - 학습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준별(상·중·하위권) 콘텐츠\*를 제공하고 학습관리서비스\*\*와 연계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한다.(‘21~)
    - \* 수능특강·수능완성 등 중·하위권 대상 연계교재 사용설명서(전 영역, 17강좌 325편), 상위권 대상 연계교재 발전수준 강좌 개발(전 영역, 52강좌, 1,414편)
    - \*\* 학생 개인별 2~3주 내 이수 가능한 단기강좌(10강 내외) 추천, 일일출석체크 등 비대면 학습관리·독려,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 제공
  - 고교 주요과목 대상 인공지능(AI)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(DANCHOO, 단추)을 고도화\*하고(2021.9.~), ‘EBS고교강의’를 지속적으로 개발·제공\*\*한다.
    - \* 온라인클래스와 연계하여 학생의 단원평가 결과 등을 인공지능(AI) 학습진단 시스템과 연동하여 학생 수준별 맞춤형 문제를 추천하도록 고도화
    - \*\* 수능 11,917편, 내신 976편, 대학별 입시 특강 496편(총 13,389편) 제공(‘21)
  - ‘EBS 고교강의’를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자원 통합·공유서비스(클라우드) 기반으로 전환하고, 언제·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을 제공(PC·모바일·태블릿)하여 콘텐츠의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.(‘21.3.~)

## 입시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진로·진학지도 내실화

-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안착과 영재학교·과학고 입학전형 개선을 통해 초·중학교 단계 사교육 유발 요인을 해소한다.
  - 자사고·외고·국제고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, 일반고 전환 시 행·재정 지원을 강화\*하고 전환학교의 우수사례를 공유·확산 하여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안착을 추진한다.
    - \*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 및 재정지원 확대 추진(‘22.~)
  - 영재학교·과학고의 입학전형에서 과도한 경쟁·지식 위주 평가에 따른 선행학습·사교육 유발 최소화를 위해 「입학전형 개선 방안\*(‘20.11.)」의 현장 안착을 추진한다.
    - \* (주요 내용) 사교육 영향평가 도입·운영(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항 출제 금지, 학교별 출제 문항 공개), 전형기간 단축, 입학전형 문항 개선, 지역인재 우선 선발 확대
    - ※ 「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」 개정 추진(현재 입법예고 중: ‘21.2.26.(금)~4.7.(수))

- 학생부·수능 위주의 전형 단순화 등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.
  - 논술·특기자전형 감축 유도,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체 검증 강화 기반 마련\* 등 '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'을 지속 추진한다.
    - \*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기재 금지어 목록 추가, 학생별 서술형 항목(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,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,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) 내 기재 위반 의심 사례(변칙 기재 포함)를 검출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 개발·보급('21)
  - 수능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출제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\*하여 대입제도 안정화를 도모한다.
    - \* 선행학습 출제 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제재처분, 특별법 적용 대학도 징계의결 요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추진('21~)
- 학생 맞춤형 진로·진학 지도로 진로·진학 학습상담 목적 사교육 수요를 완화한다.
  - 중학교 자유학기(년) 활동 내용·운영 시기를 학교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, 등교·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\*를 확대하여 다양한 진로탐색활동 기회를 제공한다.
    - \* (예시) '인공지능 로봇과 친구 되기' 자유학기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, 새로운 종류의 직업이나 사업을 상상하고 만드는 모의 활동을 통해 진로 및 직업 탐색
  -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진로집중학기 운영 등 고1 1학기에 진로 구체화 및 학업 계획 수립을 집중 지원하고 교원의 관련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  - ※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인원(누적) : (~'20) 320명 → ('21) 1,000명 → ('22) 1,600명
  - 진로·진학 상담 콘텐츠를 개발·보급하고, 진로체험을 확대\*하는 등 단위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강화를 지원한다.
    - \* 스포츠 스타, 예술체육요원 등 체육예술분야의 우수한 인력이 진로체험버스 멘토로 참여하거나, 온라인 진로멘토링을 실시(교육부-문체부 업무협약, '21.2.)
  - 대입지원단을 운영하고, 온라인 상담·입시 유형별 자료 제공을 위한 대입지원관 배치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맞춤형 진학지도를 강화한다.

##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

-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·제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양극화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.
  - 교육급여 항목\*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구입 등 개개인의 교육 수요에 따른 자율적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보장수준을 인상한다.
    - \* 지난해까지는 항목중심(학용품비, 부교재비)으로 지원했으나, 올해부터 항목 통합
    - ※ 교육급여 지원('20→'21, 만 원) : (초) 20.6→28.6, (중) 29.5→37.6, (고) 42.2→44.8
  - EBS 무상 교재 지원 대상자를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\*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과정 학습을 지원한다.('21~)
    - \* (기존)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정의 고교 학생(약 8만 명) → (변경) 생계·의료·교육급여 수급 가정의 고교 청소년(약 12만 명, ↑3만7천명)
    - 아울러, 무상 교재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동기유발, 학업향상 등 학습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한 온라인 '듀냐학습관리'\* 서비스를 운영한다.
      - \* 출석현황, 주간학습, 계획점검, 공부일기 등 별도 학습관리, 학습독려 이벤트, 시기별 학습법 제공 멘토링, 성적확인을 통한 개별 학습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('21.4.~11. 운영)
  - 또한, 소외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운영을 지원한다.
    - ※ 지원 대상 중위소득범위 확대(안) : ('20) 60%내외 → ('21) 70% → ('22) 80%
  -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회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유도하고 대학에서 사회배려 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하는 '사회통합전형' 법제화를 추진한다.
-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력격차 최소화를 위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인다.

- 실시간 쌍방향 소통·수업을 확대하고, 학생의 규칙적인 학습·생활습관 형성 지원을 위해 출결확인 가능기간을 단축(7일→3일)하며,
  - 불참학생에게 당일 대체학습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업 피드백을 강화한다.
- 스마트기기 무상 대여 등을 통해 누구나 원활하게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을 위한 학습 환경을 구축\*한다.
  - \* (무선망) 초·중·고 일반교실 등 25.2만실 구축 완료('21.6.) → 교과·특별교실 등 구축('21.하) (기기) 무상 대여 등을 통해 학생 대상 스마트기기 지속 지원(2021년 20만여 대 추가 확보 예정) (노후기자재) 노후 PC 20만여 대 최신기종 노트북, 태블릿 또는 데스크탑 등으로 교체('21.3.)

## 잠재 사교육 유발 요인에 선제 대응

-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연계한 학교 밀집도 완화를 통해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한다.
- 다음으로, 방과후학교를 정상화하고 돌봄을 확대한다.
  -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면 등교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\*를 하고,('21.3.~)
    - \*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사전 수요조사, 강사인력풀 구성 등 전면 등교와 동시에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
    - 코로나19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대면(10명 내외 소인수), 온·오프라인 병행, 실시간 쌍방향 원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·운영한다.
    - 또한, 방과후 지역연계 특화지구('21년 5개 지구, 지구당 1억 지원)와 연계하여 체육예술활동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.
  - 아울러, 돌봄교실 등을 확대하고 체육·예술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.
    - ※ 초등돌봄교실(700실 ↑), 마을 돌봄 기관(495개 ↑) 확대 및 학교돌봄터(750실) 신설

- 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.
  -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청별 학원비 변동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추진(반기별 1회)하고, 고액의 입시학원·과외 대상 점검을 강화한다.
    - 교습비 초과징수, 조정명령 위반 사항 등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한다.
  - IEM, TCS 국제학교 등과 같이 학교로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처럼 운영하며 대안교육을 표방하는 사교육 시설 등의 불법·편법 운영에 대한 점검·정비를 추진한다.
    - 실태조사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, 그 결과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.

## 주요 교육정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공교육 내실화

-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「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」(‘21.1.), 「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」(‘21.2.) 등 주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.
  - 더불어, 2022 교육과정 개정, 고교학점제 전면도입, 고교체제개편, 미래형 대입 등 미래교육 전환을 착실히 준비한다.
-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사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.
  - ‘학부모온(On)누리’ 사이트를 활용하여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확충하고 최신 교육정보를 제공한다.
    - 아울러, 사교육 관련 잘못된 믿음 개선, 자녀 성공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 등을 위해 학부모 교육 자료를 개발·보급한다.

- 특히, 2022 교육과정 개정,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주요 교육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**공교육**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.
- 근본적으로,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‘**사교육 격차 - 학력 격차 - 임금 격차**’의 **사회구조적**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.
  -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, 지방대 재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방대를 육성하여 **학력 격차**를 **완화**한다.
  - 공공기관 정보가림(블라인드) 채용과 같이 채용단계에서 **공정한 경쟁 문화\***를 확산하여 학력에 따른 **임금격차 완화**를 위해 **지속 노력**하고, 재계·노동계 등과 범사회적으로 협력하여 **공정한 채용 문화**를 민간으로 **확산\*\***한다.
    - \* 공공기관의 필기시험 확대 및 블라인드 면접 전면 실시 등 능력중심 평가 확산, 채용기준 임의해석 방지를 위한 지침 보완(‘21) 등 채용절차의 객관성 강화
    - \*\*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을 위해 경제단체 등과 협력해 우수 공정채용사례를 선정하고 중소기업 등 대상 컨설팅(‘21년 250개 기업) 제공

